

##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및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분노

박영주<sup>1)</sup> · 박은숙<sup>1)</sup> · 장성옥<sup>2)</sup> · 최명숙<sup>3)</sup> · 송준아<sup>4)</sup> · 문소현<sup>5)</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분노와 적대감에 대한 연구들은 분노와 적대감이 관상동맥질환의 유의한 심리적 위험 요인임을 지적하여 왔으며,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분노의 기질적 상태 즉, 평상시의 분노 빈도나 분노를 느끼는 정서상태를 의미하는 기질분노(Trait anger)와 분노표현의 내향화 또는 외향화 등과 같은 분노표현 방식(Anger expression pattern)이 인슐린 저항, 포도당 내성, 혈청지질 이상 및 고혈압 등을 포함하는 대사성증후군(Raikkonen, Matthews, & Kuller, 2002; Raikkonen, Matthews, Sutton-Tyrrel, & Kuller, 2004)과 같은 정신신체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적대감(Hostility)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위해나 손상을 입히는 공격적 행동으로 동기화하는 일련의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 분노는 경미한 흥분에서 격노에 이르는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개인의 기질분노나 분노표현 방식 형성에 영향하거나 관련이 있는 선행요인들(Antecedents)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분노의 선행요인으로는 만성적인 조급성, 인내성 부족, 경쟁심, 분노, 적대감 및 능력과 통제감에 대한 강한 욕구 등의 특성을 보이는 A형 행동유형(Type A behavior pattern), 잠재적인 유전적 소인의 가능성, 또는 어린시절 돌봄 제공자와의

애착경험 및 부모양육방식과 같은 가족적 요인 등이 제안되고 있다(Muris, Meesters, Morren, & Moorman, 2004). 이를테면, Grunbaum, Vernon과 Clasen(1997)은 아동기의 애착을 반영할 수 있는 성인 애착 유형이나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같은 가족환경을 설명하는 개념들이 기질분노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Troisi와 D'Argenio(2004)는 성인초기 남성에서 불안정 성인 애착유형과 기질분노가 관계가 있고 이는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불안 애착유형 또는 회피적 애착유형 역시 기질분노의 예측요인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Muris 등(2004)은 자신을 회피적 또는 양가적 애착유형으로 자가 보고한 청소년은 안정애착유형을 보인 청소년보다 분노/적대감 수준이 높고, 부모양육방식 역시 분노/적대감과 관계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애착과 분노의 관계를 Park과 Choi(2005)는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s)라는 개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 즉,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애착 안정성은 어떤 사건에 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에 영향하고, 이는 개인의 과거 경험들이 추상화되어 축적된 인지적 구조인 인지도식(Cognitive scheme)에 영향해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애착은 어떤 생활사건에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어서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적고 분노와 공격성이 적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를 의미하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주요어 : 대학생, 분노, 성인애착, 부모양육방식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박영주 E-mail: yjpark@korea.ac.kr)

2)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3)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4) 서일대학 간호과 교수, 5)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투고일: 2006년 4월 26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28일

역시 분노발달의 원인적 요인일 수 있음을 선행의 연구결과들은 보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Miller, Smith, Turner, Guijarro와 Hallet(1996)은 적대감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 성인초기 청년의 적대적 태도는 부모가 수용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순응을 요구할 때 그리고 훈육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발달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가족환경이 갈등적이거나 응집력이 약할 때, 또한 부모가 덜 수용적이고 통제력이 높아 아이의 소망을 막고 훈육적일 때 분노와 적대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기 제시된 최근의 분노관련 연구들은 현대인의 대표적 만성질환인 관상동맥 질환, 대사성 증후군 및 정신신체 질환의 심리적 요인으로 분노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분노 정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 접근으로 애착과 부모양육의 개념간의 관계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애착과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정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과 자아개념, 효능감 및 불안(Kim, Oh, Lee, & Park, 2001), 스트레스 대처방식(Kim, 2004; Shin & Ahn, 2004), 사회적지지(Shin & Ahn, 2004),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Moon, 2003) 등이 관계가 있는지, 또는 문제행동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특정집단에서 문제행동 발생과 애착 안정성 및 부모 자녀양육방식(Oak, Oh, & Jung, 2001)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서 분노와 같은 정서적 특성의 발달과 애착 및 부모양육 방식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초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유형과 부모양육방식과 분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실증적 접근을 함으로써 개인의 애착과 부모양육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접근이 분노관리 접근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목적 및 가설**

-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애착유형과 부모양육방식을 파악한다.
-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 애착유형과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가설 1: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기질분노 수준과 분노표현방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에 따라 기질분노 수준과 분노표현방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과 부모 양육방식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방식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강북에 위치한 K대학교와 S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편의표출에 의해 표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K대학교 315명, S대학 335명, 총 650명이었다.

**연구도구**

- 상태-기질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기질분노와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분노척도는 Chon, Hahn, Lee와 Spielberger(1997)의 한국판 상태-기질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분노 10문항과 기질분노 10문항,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을 측정하는 분노억제(Anger-in) 8문항, 분노표출(Anger-out) 8문항, 그리고 분노조절(Anger-control) 8문항,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상태분노 10문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기질분노는 평상시의 분노 빈도나 분노를 느끼는 정서상태를 의미하며, 기질성 기질분노 6문항과 반응성 기질분노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분노표현은 분노가 표현되는 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억제 8문항은 분노감정을 참거나 억압하는 내향화된 분노를, 분노표출 8문항은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분노를 표현하는 외향화된 분노를, 그리고 분노조절은 개인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범위는 ‘거의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기질분노가 10점에서 40점이며, 분노억제, 분노조절 및 분노표출 각각이 8점에서 32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기질분노 .85, 분노조절 .83, 분노억제 .65, 그리고 분노표출이 .74이었다.

- 성인애착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유형의 측정은 Hazen과 Shaver(1987)가 개발한 성인애착유형 척도를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응답자의 대인관계에 대한 지각을 통해 애착상태를 추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안정 애착유형(Secure attachment)과 불안정 애착유형으로 회피적 애착유형(Avoidant attachment)과 양가적 애착유형(Ambivalent attachment), 총 3가지 애착유형에 상응하는 3가지의 서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며, 응답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하도록 구성되어있다.

● 부모양육방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Fels research institute에서 제작한 Parent behavior ration scale을 모체로 Hong(2001)이 개발한 부모양육방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애정요인 5문항, 자율통제요인 5문항,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별도로 물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있다. 문항은 가정의 분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통제와 영향, 자녀에 대한 비판의 정도, 부모의 설명태도,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각 차원별로 5점에서 2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가 어머니에서 애정요인은 .79, 통제요인은 .53, 아버지에서 애정요인은 .79, 통제요인은 .60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강북 소재 K대학교와 S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본 연구목적에 동의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허락을 받은 뒤 연구조원에 의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657부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하고 65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pc-SAS program (Version 8.0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양육방식 유형 분석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은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s를 이용하였고, 최종 군집분석은 K-means clustering method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성인애착유형별, 부모양육방식 유형별 기질분노 수준 및 분노표현 차이 분석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성인애착유형과 부모 양육방식 유형별 분포에 대한 분할표 분석은  $\chi^2$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연구변수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72.6%(471명), 여학생이 27.4%(17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3세로 범위는 17세에서 31세였다. 출신지역은 서울이 36.0%(227명), 경기도가 18.3%(115명)로 전체의 54.3%(342명)가 서울 경기 지역 출신이었다. 집에서 떠나 있는 학생은 전체의 53.6%(347명)이었으며, 대상자의 12.3%(79명)는 스스로 학비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상태는 중이 82.3%(531명)이었다.

제 연구변수의 평균은 기질분노 18.3, 분노조절은 19.6, 분노억제는 15.9, 분노표출은 13.8이었다. 부모양육방식의 평균 점수는 어머니의 애정요인은 19.7, 통제요인은 14.6이었으며, 아버지의 애정요인은 18.9, 통제요인은 14.7이었다<Table 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N(%)	M(SD)
Trait anger		18.3(5.2)
Anger expression		
Anger-control		19.6(4.8)
Anger-in		15.9(3.7)
Anger-out		13.8(3.6)
Parental rearing style		
Mother's Warmth and acceptance		19.7(3.7)
rearing style Control		14.6(3.4)
Father's Warmth and acceptance		18.9(4.1)
rearing style Control		14.7(3.3)
Attachment style		
Secure attachment	408(65.5)	
Avoidant attachment	138(22.2)	
Ambivalent attachment	75(12.3)	
Missing	29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애착유형 및 부모 양육방식 유형 분석

대상자의 성인애착유형은 안정 애착유형이 65.5%(408명), 회피적 애착유형이 22.2%(138명), 양가적 애착유형이 12.3%(75명)이었다<Table 1>.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애정, 통제요인과 아버지의 애정, 통제요인 점수를 기초로 부모양육방식을 유형 분석한 결과 군집이 4개일 때 RSQ가 급격히 증가하고 Pseudo F값이 높았다가 떨어지며, Pseudo t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군집의 수를 4개로 선정하였다.

각 군집별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요인과 통제요인의 점수 분포를 어머니의 애정요인 점수, 통제요인점수, 아버지의 애

<Table 2> Cluster analysis for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N=577)

Cluster (n, %)	Mother's rearing style		Father's rearing style	
	Warmth & acceptance	Control	Warmth & acceptance	Control
	M(SD)	M(SD)	M(SD)	M(SD)
Neglect rearing type (56, 9.7)	13.59(3.70)	9.47(3.47)	12.41(3.74)	10.00(3.35)
Democratic rearing type (191, 33.1)	21.70(2.06)	12.85(1.98)	21.26(2.21)	12.98(1.87)
Permissive rearing type (167, 28.9)	17.48(2.75)	15.32(2.09)	15.88(2.44)	15.65(2.11)
Protective-Control rearing type (163, 28.2)	21.83(2.14)	17.63(2.35)	21.36(2.34)	17.84(2.27)

정요인 점수 아버지의 통제요인 점수의 순서로 기술하면, 군집 1은 13.59, 9.47, 12.41, 10.00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 및 통제가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군집 2는 21.70, 12.85, 21.26, 12.98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애정요인 점수가 높은 반면 통제요인 점수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군집 3은 17.48, 15.32, 15.88, 15.65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애정 및 통제 점수가 중정도의 특징을 보였고, 군집4는 21.83, 17.63, 21.36, 17.84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애정요인과 통제요인이 모두 높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류되었다<Table 2>.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군집1은 방임형(Neglect rearing type), 군집2는 민주형(Democratic rearing type), 군집3은 관대형(Permissive rearing type), 군집4는 보호간섭형(Protective Control rearing type)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별 수는 방임형이 9.7%(56명), 민주형이 33.1%(191명), 관대형이 28.9%(167명), 보호간섭형이 28.2%(163명)이었다.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 분노표현 차이 분석**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 수준의 차이 검증 결과<Table 3>, 기질분노 수준은 안정 애착유형이 17.83, 회피적 애착유형이 19.28 그리고 양가적 애착유형이 18.71로 세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56, p=.03). 구체적으로 유형별 다중비교에서는 회피적 애착유형의 기질분노 수준이 가장 높고, 안정 애착유형에서 기질분노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

노표현에서 분노조절 빈도는 안정 애착유형이 20.01, 회피적 애착유형이 18.75 그리고 양가적 애착유형이 19.01이었으며 세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34, p=.01). 구체적으로 유형별 다중비교에서는 안정 애착유형의 분노조절 점수가 가장 높고, 회피적 애착유형에서 분노조절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분노억제 빈도 역시 안정 애착유형이 15.35, 회피적 애착유형이 16.67 그리고 양가적 애착유형이 17.09이었으며 세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39, p<.0001). 유형별 다중비교에서는 안정 애착유형의 분노억제 점수가 가장 낮고, 양가적 애착유형에서 분노억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분노표출에서는 안정 애착유형이 13.70, 회피적 애착유형이 14.18, 양가적 애착유형이 13.88로 안정 애착유형에서 분노표출 점수가 낮았으나 애착유형별 분노표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91, p=.4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분노, 분노표현 차이검증**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제 연구변수의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분노조절(F=2.20, p=.09)을 제외한 기질분노(F=3.76, p=.01), 분노억제(F=2.97, p=.03) 및 분노표출(F=3.60, p=.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군별 다중비교에서는 기질분노의 경우 부모양육방식이 방임형의 경우에서 기질분노 점수(20.21)가 가장 높은

<Table 3>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according to the perceived attachment style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N=621)

Variables	Secure attachment (n=408)	Avoidant attachment (n=138)	Ambivalent attachment (n=75)	F (p)
	M (SD)	M (SD)	M (SD)	
Trait anger	17.83(5.09) <sup>b</sup>	19.28(5.47) <sup>a</sup>	18.71(5.09) <sup>ab</sup>	3.56( .03)
Anger expression				
Anger-control	20.01(4.85) <sup>a</sup>	18.75(4.36) <sup>b</sup>	19.01(5.08) <sup>ab</sup>	4.34( .01)
Anger-in	15.35(3.78) <sup>b</sup>	16.67(3.50) <sup>a</sup>	17.09(3.52) <sup>c</sup>	11.39(<.0001)
Anger-out	13.70(3.51)	14.18(3.95)	13.88(3.64)	0.91( .40)

Not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s between the two pairs at  $\alpha$  of .05.

<Table 4> Means differences in the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parental rearing style in the undergraduate students

Variables	Parental rearing style				F (p)
	Neglect M(SD)	Democratic M(SD)	Permissive M(SD)	Protective-control M(SD)	
Trait anger	20.21(5.90) <sup>a</sup>	17.66(4.76) <sup>t</sup>	18.16(5.15) <sup>b</sup>	18.04(4.92) <sup>b</sup>	3.76( .01)
Anger expression					
Anger-control	18.95(4.63)	20.05(4.60)	19.33(5.08)	20.39(4.48)	2.20( .09)
Anger-in	17.21(4.29) <sup>a</sup>	15.64(3.13) <sup>b</sup>	15.96(3.85) <sup>b</sup>	15.70(3.67) <sup>b</sup>	2.97( .03)
Anger-out	15.20(4.49) <sup>a</sup>	13.53(3.64) <sup>b</sup>	13.82(3.71) <sup>b</sup>	13.44(3.20) <sup>b</sup>	3.60( .01)

Not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s between the two pairs at  $\alpha$  of .05.

<Table 5> Frequency analysis between the two attachment styles and four parental rearing styles

Attachment style	Parental rearing style				$\chi^2(p)$
	Neglect N(%)	Democratic N(%)	Permissive N(%)	Protective-control N(%)	
Secure attachment	29(51.8)	131(68.6)	98(58.7)	114(69.9)	9.9( .02)
Insecure attachment	27(48.2)	60(31.4)	69(41.3)	49(30.1)	

반면, 민주형에서 가장 낮은 점수(17.66)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형이 다른 세 유형보다 기질분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에서도 방임형이 각각 17.21, 15.2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세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 추가분석: 성인애착유형과 부모양육방식의 분할표 분석

추가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성인애착유형을 안정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과 양가적 애착유형을 불안정애착유형으로 분류하여 2가지 애착유형과 4가지 부모양육방식의 빈도에 대한 분할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정 애착유형과 불안정 애착유형이 각각 순서대로 방임형에서는 51.8%(29명), 48.2%(27명). 민주형은 68.6%(131명), 31.4%(60명), 관대형은 58.7%(98명), 41.3%(69명) 그리고 보호간섭형은 69.9%(114명), 30.1%(49명)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9.9, p=.02$ ). 따라서 불안정 애착유형이 방임형과 관대형에서, 안정애착유형이 민주형이나 보호간섭형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애착유형과 부모양육방식이 성인초기에 있는 대학생의 분노라는 정서의 원인적 선행요인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되었다. 특히 성인애착은 현재의 타인과의 애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생초기의 애착을 추측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인애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모델은 인생초기 영아기의 애착유형

이 지속적으로 성인기에도 유지된다는 발달심리학적 관점과 어린 시절의 애착관계의 경험이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내적표상으로 작동하고 이 정신적 표상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애착유형이 결정된다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이 된다(Kim, 2004). 이 두가지 관점은 인생초기에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애착 형성의 결과가 후에 발달하는 정서적 안정성에 기초가 되어 평생에 걸친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을 이끄는 정신건강의 원천이 된다(Shin & Ahn, 2004)는 점에서 근원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애착의 평가는 어린시절 애착관계의 평가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양육방식의 평가와 함께 가족환경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이 점에서 성인애착과 부모양육방식은 분노 정서의 원인적 선행요인으로 중요한 가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인 우리나라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애착유형은 안정 애착유형이 65.5%인 반면, 불안정 애착유형은 34.6%(회피적 애착유형 22.2%, 양가적 애착유형 12.4%)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에서는 안정 애착유형이 회피적이거나 양가적인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기질분노가 유의하게 낮고, 분노표현에서도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esters와 Muris(2002)는 성인초기 여성 139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Haze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 질문지를 이용하여 성인애착유형을 측정된 결과 대상자의 27.3%가 회피적 또는 양가적인 불안정 애착유형을 보였고, 불안정 애착을 보인 여성은 안정애착을 보인 여성보다 분노와 적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Muris 등(2004)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회피적 양가적 애착유형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안정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보다 분노와 적대감이 더 높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Troisi와 D'Argenio(2004) 역시 우울증이 있는 젊은 남성에서 기질분노는 불안정애착과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우울의 중증도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회귀에서 불안 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은 기질분노의 독립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불안정 애착은 정상 인구집단이 아닌 우울증 환자집단에서도 분노의 유용한 예측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Kim(2004)이 대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및 관련 변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정 애착유형은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활동성, 안정성, 사회성이 높고 신경증적 경향, 정신장애적 경향 및 반사회적 경향이 낮았으며, 스트레스 직면시 불안정 애착유형들(거부, 몰두, 두려움)보다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욱 많이 사용하며, 불안정 애착유형은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Lee, Noh, Son, Ok과 Kim(2002)은 남녀고교생 792명을 대상으로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안정 애착유형보다 불안정 애착유형이, 불안정 애착유형 중에서는 몰두형과 두려움형이 모든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고, 주의력이나 공격성 점수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애착과 분노와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앞서 인용한 Meesters와 Muris(2002)의 연구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불안정 애착유형이 본 연구에서는 34.6%인 점을 감안하면 더 높은 불안정 애착유형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역시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경우 기질분노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 점은 Meesters와 Muris(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추가분석 결과를 보면 애정요인과 통제요인이 모두 낮은 방임형의 부모양육방식을 보고한 대학생에서 회피적 또는 양가적 애착유형인 불안정 애착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생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지속성을 가지면서 일단 조직화된 이후에는 외부 의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극적 변화에 대해서는 저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이후 양육자의 태도 변화나 친한 친구, 애인, 혹은 배우자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도 수정이 가능하여 재조직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 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접근은 이후 대인관계에서의 분노를 관리하는 한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인 우리나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은 군집분석결과 방임형(Neglect rearing type), 민주형(Democratic rearing type), 관대형(Permissive rearing type) 그리고 보호간섭형(Protective-control rearing type)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부모양육방식별 기질분노, 분노표현 분석결과에서는 방임형이 다른 세 유형에 비해 기질분노도 높고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is 등 (2004)은 부모 양육방식이 거부(Rejection), 통제(Control) 및 비일관성(Inconsistency)을 보일 경우 분노, 적대감,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양의 상관이 있는 반면 부모가 정서적 따뜻함 (Emotional warmth)을 보일 경우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거부는 분노, 적대감 및 공격성에서 가장 유의한 설명변수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방임형은 나머지 3가지 유형들과 달리 애정요인, 통제요인 점수도 가장 낮은 즉, 따뜻하고 수용적이지 않은 거부적 양상을 갖는 부모 양육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DeVore와 Ginsburg(2005)는 사춘기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감시 (Parental monitoring), 의사소통 및 감독 등의 부모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 검토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권위적 양육방식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부모감시는 10대에서 많은 사춘기 위험행위(성활동, 혼전임신, 범죄행동 등)로부터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높은 수준의 따뜻함, 수용성, 엄격한 제한적 상황, 개방적인 의사소통 및 높은 수준의 감독의 특징을 갖는 양육방식을 의미하며, 부모감시는 부모와 청소년간의 감독과 의사소통을 통합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Oak 등 (2001)이 청소년기에서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부모의 애정과 합리적 설명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업성취와 양육방식간의 관계를 보고한 국내외 연구들은 양육방식이 권위적(Authoritative)인 부모를 가진 자녀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았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Joshi, Ferris, Otto, & Regan, 2003; Kim & Chung, 2003).

결국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애착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성인애착유형과 부모양육방식이 기질분노, 분노표현 방식의 원인적 선행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성인애착유형과 부모 양육방식 간에도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어서 부모 양육방식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족중재 외에도 개인의 애착유형과 개인이 경험한 부모양육 행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과정을 통한 인지적 접근은 개인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자동적 사고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관리하는 인지적 접근

근의 한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분노관리를 중재함에 있어서 발달단계 별로 분노관리의 세부적 내용은 차이가 존재해야 하고 특히 성인초기,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분노관리 프로그램은 개인의 애착경험과 부모양육 방식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과정을 고려한 인지적 접근이 하나의 구성요소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초기에 있는 남녀 대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기질분노, 분노표현에 대한 성인애착유형 및 부모양육방식의 관련성을 조사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불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대학생에서, 부모 양육방식이 애정요인과 통제요인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한 대학생에서 기질분노가 높고,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부모가 애정요인이 낮은 경우 불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및 성인초기에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노관리에서는 애착 및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과정을 고려하는 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편의표집에 의한 표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등의 방법론적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통해 인과적 설명력을 높이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Chon, K. K., Hahn, D. W., Lee, C. H., & Spielberger, C. D.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inventory: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 Health Psychol*, 2(1), 60-78.
- DeVore, E. R., & Ginsburg, K. R. (2005). The protective effect of good parenting on adolescents. *Curr Opin Pediatr*, 17, 460-465.
- Grunbaum, J. A., Vernon, S. W., & Clasen, C. M. (1997). The association between anger and hostility and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Ann Behav Med*, 1997, 19, 179-189.
- Haze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 personal Soc Psychol*, 52, 511-524.
- Hong, Y. J. (2001). *The effects of self-esteem, stress and parenting styl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Joshi, A., Ferris, J. C., Otto, A. L., & Regan P. C. (2003).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s, *Psychol Rep*, 93(3), 823-828.
- Kim, E. S. H., Oh, K. J., Lee, E. C., & Park, J. G. (200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 - Focus on cognitive variables-. *Korean J Clin Psychol*, 20(1), 105-119.
- Kim, H., & Chung, R. H. (2003). Relationship of recalled parenting style to self-perception in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 Genet Psychol*, 164(4), 481-492.
- Kim, K. U. (200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related with adult attachment styles and factors. *Korean J Couns Psychother*, 16(1), 53-69.
- Lee, S. H., Noh, K. S., Son, S. H., Ok, C., & Kim, K. I. (2002).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41(2), 274-282.
- Meesters, C., & Muris, P. M. (2002). Attachment style and self-reported aggression. *Psychol Rep*, 90(1), 235-235.
- Miller, T. Q., Smith, T. W., Turner, C. W., Guijarro, M. L., & Hallet, A. J. (1996).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on hostility and physical health. *Psychol Bull*, 119, 322-348.
- Moon, E.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 in adolescence. *Korean J Educ Res*, 41(3), 349-369.
- Muris, P. M.,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 (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 Psychosom Res*, 57, 257-264.
- Oak, J., Oh, Y., & Jung, H. (2001). Adolescent attachment type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Comparison among incarcerated delinquent group, risk group and normal group-. *Korean J Clin Psychol*, 20(2), 259-270.
- Park, J. N., & Choi, H. R. (2005). Perceived adolescents' attachment to mother/father, automatic thoughts and aggression. *Korean J Couns Psychother*, 17(1), 249-264.
- Raikkonen, K., Matthews, K. A., & Kuller, L. H.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risk attributes and the metabolic syndrome in healthy women: Antecedent or consequence?. *Metabolism*, 51(12), 1573-1577.
- Raikkonen, K., Matthews, K. A., Sutton-Tyrrell, K., & Kuller, L. H. (2004). Trait anger and the metabolic syndrome predict progression of carotid atherosclerosis in healthy middle-aged women. *Psychosom Med*, 66(6), 903-908.
- Shin, N. R., & Ahn, C. I. (2004).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self-concept, self-efficacy,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Korean J Clin Psychol*, 23(4), 949-968.
- Troisi, A., & D'Argenio, A.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epression in a clinical sample of young men: The role of insecure attachment. *J Affect Disord*, 79, 269-272.

## The Relation of Self-reported Adult Attachment Style,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and Anger in Undergraduate Students

Park, Young-Joo<sup>1)</sup> · Park, Eun Sook<sup>1)</sup> · Chang, Sung Ok<sup>2)</sup>  
Choi, Myung Sook<sup>3)</sup> · Song, Jun Ah<sup>4)</sup> · Moon, Sohyun<sup>5)</sup>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3)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4)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5) Doctoral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elation of self-reported adult attachment style,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and anger in undergraduate students. **Method:** The six hundred and fifty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study were conveniently sampled from K University and S College located in Seoul, Korea. The instruments were Spielberger'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Korean version(Chon, Han, Lee & Spielberger, 1997), the instrument for measuring attachment styles by Hazen and Shaver (1987), and Hong's instrument for measuring parental rearing style(2001).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2$ -test, ANOVA, and cluster analysis using pc-SAS(version 8.0e)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for trait anger and anger-in were higher in undergraduate students with insecure and ambivalent attachment style compared to students with a secure attachment style. The mean score for anger-control was highest in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 secure attachment style. The parental rearing styles by cluster analysis were grouped as Neglect, Permissive, Democratic, and Protective-control. The mean scores for trait anger, anger-in, and anger-out were higher in undergraduate students with 'Neglect' parental rearing style than in those with 'Democratic' and 'Protective-control' rearing styles. **Conclusion:**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might be related to an attachment style and/or a parental rearing style.

Key words : Anger, Attachment, Parenting, Undergraduat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Young-Joo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5-ka, Anam-dong, Sungbuk-ku, Seoul 136-705, Korea

Tel: 82-2-3290-4916 Fax: 82-2-927-4676 E-mail: yjpark@korea.ac.kr